

 2018 

제1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종합)

“우리는 왜 마을로 가는가?”



일시

2018. 2. 23(금), 14~18시

장소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간U
-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 1층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만들기 경험과 제안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장 조 병 혜

저는 2011년부터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신곡마을 이장을 맡아 마을 일을 맡고 있는 8년차 이장입니다.

처음 이장 일을 보면서는 행정에서 내려 주는 사업만 했습니다. 농로정비, 마을 안길 포장 등 사업을 기다려야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을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기다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면사무소도 다른 마을 이장이 한 번 갈 때 두 번 가고, 면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마을에 대한 요구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소문이 났는지, 2014년 초에 군청 직원이 찾아와 희망마을이란 사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교육도 하고 잘 사는 마을에 구경도 간다는 설명을 듣고 보니 마을을 위해 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았습니다. 주민회의를 열어 의논한 결과 주민들 호응이 좋아 희망마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도 받고 마을 자원도 찾아보고 잘 산다는 마을로 견학도 가고 일 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상을 받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받자마자 바로 써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희망마을 사업을 통해 세운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 희망마을 선행사업에 선정되었고 연말 사례발표 우수상 상금을 합쳐 5천만원을 마련하여 소규모 두부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농한기인 겨울철에 두부를 만들어 주변 마을과 지인들에게 판매한 결과 호응이 좋고 작게나마 돈도 모이니 주민들도 좋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장으로는 2017년부터 일을 맡았습니다. 2017년의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는 70여개의 마을이 회원으로 있었으나 참석률도 저조하고 관심이나 의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협의회 정비를 위해 회원마을에 일일이 연락하여 참여 의지를 확인하고 정기총회를 통해 35개 마을을 정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작년에 현장포럼을 마친 5개 마을을 신규 회원마을로 받아 현재 40개 마을이 회원으로 있으며 농번기를 제외하고 매달 모임을 갖으면서 학습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희망마을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마을협의회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홍성군과 협의해 희망마을 선행사업 심사 시 희망마을협의회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고 작년부터 심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신곡마을 이장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희망마을 초기에는 군청 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 지금은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상시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신곡마을처럼 의지가 있는 마을들에 대해 행정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항상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는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초기의 홍성군처럼 희망마을협의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를 경험한 희망마을협의회의 기반이 탄탄해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 선행사업 심사를 하다 보니 마을에서 신청하는 계획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마을에서 바라는 내용을 잘 정리하고 방향도 잘 잡아주어 각 마을마다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에서도 지원폭은 넓히고 문턱은 낮춘 사업을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즘 홍성군 희망마을협의회는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서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도 얻고 마을 소식도 서로 교환하면서 재미있게 마을만들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성군을 비롯한 충남의 마을만들기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